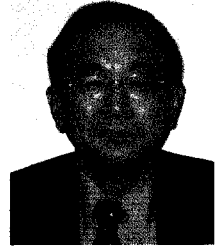


# 원조국에서 원조 받는 나라로, 피폭국에서 피폭을 일으킨 나라로

— 지금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 주님의 평화

한국의 국민 여러분, 한국가톨릭교회관계자 및 가톨릭 신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원 여러분, 이번 일본의 쓰나미 재해와 연이은 원자력발전소의 2차 재해에 보내주신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원전 재해와 관련하여 각 나라에 보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일본 국민은 잘 있습니다. 성마리아병원을 위시한 성마리아그룹 전 직원도 무사히 일상적인 진료 활동 그리고 쓰나미 피해지역에서의 의료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래 없는 재해로부터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지만 저희 병원부지 내의 '눈의 성모 성당'에 인접한 루르드 광장에 있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의 기술협정기념비 위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 들은 저희들에게 평화와 안락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들 서로의 협력과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 희망 넘치는 주님 부활의 축복이 다시금 용기와 신념을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일본의 쓰나미 재해, 또한 이에 따른 2차

재해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피폭 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인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를 조금 지나 일본의 동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진도 9.0의 거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나미는 지진 발생 약 15분 후 15~30m의 높이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쓰나미의 피해는 약 500km의 범위에 미쳤고 그 후 지진, 쓰나미의 2차 재해인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으로 원자로에서의 수소폭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10일 현재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파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천명, 행방 불명자는 1만 4천명, 이재민 수는 15만 1천명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프라(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의 붕괴는 재해지에서의 구조단 활동, 구조물자의 수송,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가져오고, 또한 공장 등의 생산라인 가동중지 등을 초래하여 국내의 물자부족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의 정지 및 방사능물질 누출로 인해 새롭게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도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계획정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로의 폐쇄까지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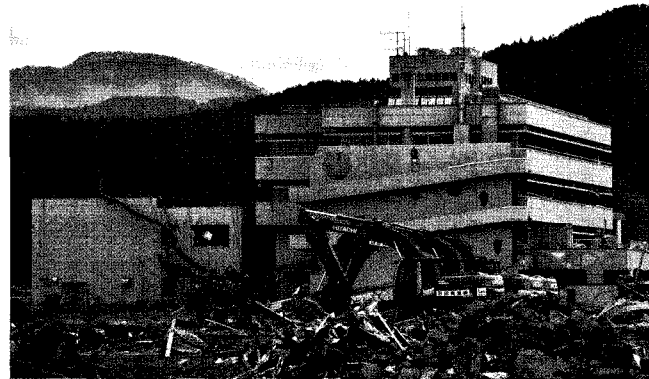
릴지 모릅니다.

쓰나미로 인한 피난민이 약 13만명, 원전 사태로 인한 피난민은 약 2만명입니다.

한편, 이번 재해에 따른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진, 쓰나미 발생 직후 정부의 요청을 받아 긴급 구호팀을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의 규모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독자적인 피해지역 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재해에서 가장 사태가 심각한 이와테현 岩手県の 리쿠젠타카다시 陸前高田市 현지사(注: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팀(의사, 간호사 등 10명)을 파견하여 임시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리쿠젠타카다시는 일본의 동북부 리아스식 해안에 위치하는 어항입니다. 이와테현은 내륙부와 해안부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륙부는 일본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추손지 中尊寺 등의 유명한 국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쿠젠타카다시는 총 인구 2만 3천명으로 이번 지진, 쓰나미로 해안 연안의 도시의 중심부가 쓰나미의 피해를 받아 약 1천 95명이 사망하였고 아직도 1천 277명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시 청사 등 행정기관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도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는 지반이 침하되어 앞으로 도시로서의 재건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리쿠젠타카다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쓰나미의 흔적을 볼 수 없었으나, 항구로부터 약 4km 떨어진 산길에 인접한 강가 양쪽에는 통상적으로 강의 흐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와는 다른 건물 등의 파편 덩어리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순간 파편 더미와 폐허가 된 빌딩, 자동차, 전복된 어선 등 진흙투성이의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친 곳은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상황인 반면, 쓰나미가 덮치지 않은 지역은 한적한 시골의 집들이 나란히 서있어 마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과 15분동안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풍토, 생활, 재산, 사람들, 가족의 평화를 일순간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뿐, 죽은 분들



일본 역사상 최대의 재해를 당하여 세계 각 국가들과 사람들의 협력, 지원과 함께  
국내에서도 각종 지원과 복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과 2차 재해인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리의 불투명함,  
행방불명자의 조사, 방사능에 오염되어 회수가 어려운 희생자 사체의 현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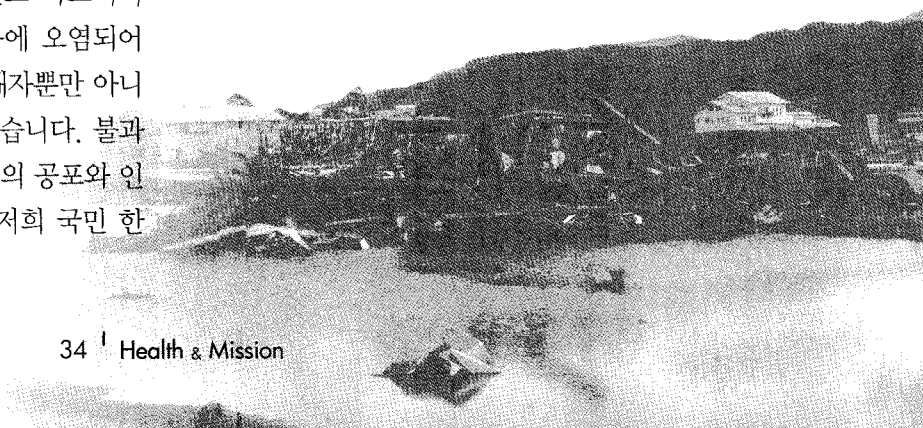
과 행방불명된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눈물만을 쏟아냈  
습니다. 목전에서 떠나려가버린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료활동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만성질환  
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가 많고 차트 등의 진료기록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진을 받고 청진기로  
진찰하고 처방된 약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이 계속되었  
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방문한 분들의 진찰과 피난  
처에서의 진찰, 피해를 면한 가정에는 개별방문을 하  
는 등 스텝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다녔습니다. 이제는 조  
금씩 인프라의 회복과 함께 간단한 여러 가지 검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재해를 당하여 세계 각 국가들  
과 사람들의 협력, 지원과 함께 국내에서도 각종 지원  
과 복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과 2차 재해인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리  
의 불투명함, 행방불명자의 조사, 방사능에 오염되어  
회수가 어려운 희생자 사체의 현실은 피해자뿐만 아니  
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불과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자연재해의 공포와 인  
간의 한계로 인한 유약함과 무기력함을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 주민의 “지금은 희망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은 하느님께 드리는 비통한 기도로 들렸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변함없는 협력과 지도 부탁드  
립니다. 저희들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희망으  
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하심을 맞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 援助国より援助を受ける国に、被爆 国より被曝を起こした国に

— 今は、希望が欲しい —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韓国の国民の皆様、韓国カトリック教会関係者の皆様方、カトリック信者の皆様方、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会員の皆様方、今回の日本での津波災害またその後の原子力発電所の二次災害に伴う多くの支援、励まし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原子力発電所災害による日本政府の各国への対応に対し、国民の一人として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日本の国民は元気です。私ども聖マリア病院を中心とした聖マリアグループ全職員も元気で日々の地域での診療活動、津波災害地への医療支援活動を積極的に行っています。大変な災害復興の環境下ではありますが、病院敷地内の「雪の聖母聖堂」に隣接したルルドの広場の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との技術協定の記念碑の上の桜が美しく咲き私たちに安らぎと平和を感じさせています。私どもの相互の協力、また来るべき希望に満ちた復活祭への祝福、さらには勇気と信念を与えてくれているように思えます。

さて、今回の日本の津波災害、またその後の二次災害の原子力発電所の放射能被曝災害について簡単に報告致します。四旬節の3月11日、午後2時過ぎに日本の東北部の太平洋沿岸地域でマグニチュード9.0の巨大地震が発生致しました。津波は、発生後約15分程度で約15～30メートルの高さで一気に押し寄せました。津波の被害は約500キロメートルの広範に及び、その後地震、津波の二次災害による原子力発電所の損傷による原子炉棟での水素爆発、放射能漏れが生じました。現在(4月10日)、地震、津波、原子力発電所損傷に伴う死者1万3千名、行方不明者1万4千名、避難者数15万1千人となっています。地震によるインフラ(道路、鉄道、電気、ガス等)の崩壊は、災害地への救援隊、救援物資の輸送、情報関係の障害、また工場等の生産ラインの停止を来し国内物資が不足の事態となりました。さらには、原子力発電所の停止及び放射能物質漏れは、新たな避難民の発生、電力供給不足による東京都を含む広域での計画停電、土壤汚染、海洋汚染が生じており国内・国際的な問題となっています。今後の原子炉の廃炉まで数か月あるいは数年間の経過を経なければならぬかと思われます。津波による避難者が約13万人、原子力発電所関係の避難者が2万人となっています。

ところで、今回の災害に伴う私どもの活動ですが、地震・津波発生後直ちに国の要請に基づき緊急援助チームを現地へ派遣致しました。その後、災害の規模の大きさのために独自に災害地の調査及び関係機関と打ち合わせを行い、今回

最も災害規模が深刻な岩手県の陸前高田市へ県知事の要請に基づき医療支援チーム(医師、看護師他10名)を派遣し臨時に診療所を開設し医療支援活動を開始致しました。陸前高田市は、日本の東北部のリアス式海岸に位置する漁港の街です。岩手県は、内陸部と海岸部の都市で構成されており、内陸部は日本の仏教文化の中心的地域で有名な中尊寺等の国宝が多数点在しています。陸前高田市は人口2万3千人で今回の地震、津波で海岸沿岸の市の中心部が津波災害を受け約1千95名が亡くられました。また現在も1千277人が行方不明となっています。市庁舎等行政機関の施設、病院等公共施設も完全に津波で破壊されています。市の中心部は地盤沈下し、今後の市としての再建は不可能かと思われます。私も現地に参りましたが、陸前高田市に到着するまでは全く津波の痕跡すら無く、山道の港より約4キロの近くで川べりの両脇に通常の川の流れて生じるゴミと違うガレキをみる事ができました。港に到着した途端、ガレキの山と廃墟と化したビル、自動車、漁船の転覆等泥にまみれた恐ろしい光景が目前に出現致しました。津波が襲った場所は手がつけられない状況、また津波が襲わなかった場所はのどかな田舎の家々が建ち並んでおり、天国と地獄を見ているような感じでした。僅か15分の出来事が、歴史的な風土、生活、財産、人々、家族の平和を一瞬にして破壊していきました。人々は、助かった出来事の話が中心で、亡くられた方々、行方不明の方々の話になると涙を流しておられました。目の前で流された人々のことを話すまでには、まだまだ時間の経過が必要かと思われます。

診療活動ですが、この地域は慢性疾患を患った高齢者の患者さんが多く、カルテ等診療記録が全く流失しているため、問診、聴診器による診察、処方された薬の絞り込み等の作業の連続でした。また、診療所を訪れた方々への診察、避難所での診察、被害を免れた家々への個別訪問等スタッフの足で稼ぐ作業の連続でした。現在は、徐々にインフラの回復に伴い簡単な諸検査も可能となっています。

日本史上最大の災害に際し、世界中の国々、人々のご協力、ご支援の基に国内も様々な支援、復興に対する活動が高まっていますが、今も相変わらず続く地震の余震、二次災害の原子力発電所事故処理の不透明さ、行方不明者の捜査、放射能に汚染された回収が困難なご遺体の現実、被災者のみならず国民の心に深い傷跡を残しています。僅か15分の自然の出来事の恐ろしさ、人間の営みのもろさ、無力さを国民一人ひとりが心の奥底に受けています。被災者が話された「今は、希望が欲しい!」との言葉は、神様への悲痛な祈りと聞こえました。主のご復活祭をあと数日で迎えます。今後とも、皆様方の変わらぬお祈りと、今後も変わらぬご協力、ご指導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私どもも神様のみ旨による新たな希望、医療活動が行えますように、主の御復活を迎えたいと思います。

神に感謝